

출판진흥원, 지역서점 경쟁력 강화 나선다

권역별 선도서점 육성 사업 일환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 참여 서점 모집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출판진흥원은 ‘2025년 권역별 선도서점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에 참여할 서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 지원 사업은 전국의 모든 오프라인 지역서점을 대상으로 한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1단계 ‘공통 컨설팅’과 △이를 이수한 서점 가운데 선정된 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2단계 ‘심화 컨설팅’으로 체계적으로 구성됐다. 1단계 공통 컨설팅은 오는 9월 25일 대전을 시작으로, 전주(9월 30일), 부산(10월 13일), 대구(10월 15일), 서울(10월 17일) 등 5개 권역에서 현장 교육과 워크숍 형식으로 열린다. 서점 소재지와 관계없이 원하는 지역에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개최 전날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현장에 참여한 서점은 추후 심화 컨설팅 선정 시 가점 혜택도 주어진다. 또한, 현장 참여가 어려운 서점을 위해 온라인 교육 과정도 마련돼 있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최소화했다. 2단계 심화 컨설팅은 공통 과정을 마친 서점이 10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서점ON’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약 60개 서점은 전문가의 방문 진단과 3회 이상 현장 컨설팅을 제공받으며, 우수서점으로 선정될 경우 포상금과 해외 선진 서점 탐방 기회까지 주어진다. 특히 출판진흥원은 심화 컨설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관리, △스마트 북큐레이션 운영을 필수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마케팅 강화, △시장 확대와

같은 선택 과제도 부여해, 모든 과정을 수행한 서점에는 약 56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더불어 연합 서점 과정을 수행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추가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출판진흥원 관계자는 “지역서점은 단순한 책 판매 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문화를 잇는 중요한 독서문화 플랫폼”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서점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아울러 성과 공유회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서점 간 상생 기반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단계 공통 컨설팅 참여 신청은 권역별 현장 참여의 경우 오는 10월 16일까지, 온라인 참여는 10월 31일까지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출판진흥원 및 ‘서점ON’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부안 국가유산 야행 성료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제4회 2025 부안 국가유산 야행이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부안 야행을 여는 개막 행사로 권익현 부안군수가 국가유산 사적 제5로 직봉-부안 점방산 봉수'의 가치와 보존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국가유산해설이 진행되었고, 부안초등학교 관현악단 윈드오케스트라의 개막축하공연이 어우러져 야행의 활기가 넘쳤다. '부안 국가유산 야행'은 8(야夜)를 주제로 총 28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부안 야행은 국가유산 당산을 소재로 한 문화행사로 '안녕, 부안의 밤 그리고 바다'를 주제로 부안 당산제와 부안농악을 비롯한 국가무형유산 봉산탈춤과 줄타기 등 부안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국가무형유산 공연을 펼치면서 많은 방문객에게 호평을 받았다. 이 밖에도 반계 유형원·여류시인 이매창·허균의 흥길동전·박지원의 허생전·근현대문학가 신석정을 주제로 한 부안의 이야기꾼 프로그램은 부안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어 좋았다는 방문객의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문화재단은 24일 팔복예술공장 회의실에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 복합소재기술연구소와 문화예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전주문화재단-한국과학기술연구원 '맞손'

탄소소재 · AI 융합 문화예술 산업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라기)은 24일 팔복예술공장 회의실에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 복합소재기술연구소(원장 오상록, 전북분원장 최원국)와 문화예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탄소소재 · AI 등 예술품 제작을 위한 과학기술 협업 및 지원 △신기술 관련 세미나 · 포럼 공동 개최 △탄소소재 예술 작가 지원을 위한 기술 협력 △문화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 추진 △기타 문화기술 분야 교류 · 협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최라기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으로 지역 예술가들이 과학기술을 활용한 창의적 작업을

시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전주가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선도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국 전북분원장은 “KIST가 보유한 탄소소재와 AI 기술을 문화예술 분야와 접목해 새로운 예술 장르와 산업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며 “정부의 미래 산업 전략과도 연계해 지역과 국가의 혁신 성장에 기여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 기관은 전주를 중심으로 한 예술 · 과학 융합 생태계 조성에 본격 나서고, 공동연구, 예술가 레지던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전통연희

국립민속국악원, 10월 6일 추석맞이 기획초청공연 개최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종현)은 오는 10월 6일 오후 3시, 예원당에서 2025 추석맞이 기획초청공연 연희집단 The 광대의 '도는 놈, 뛰는 놈, 나는 놈'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풍요와 화합을 기원하는 민족 대명절 추석의 의미를 담아,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전통연희 무대로 준비됐으며, 전통연희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판굿을 시작으로 땅줄놀이, 상쇠놀이 · 설장구놀이, 사자놀이, 소고놀이, 버나놀이, 죽방울놀이, 열두발 상모놀이까지 이어지며, 역동적이고 흥겨운 장단 속에서 관객들은 전통연희의 진수를 만날 수 있고, 특히 개별 연희가 어우러지는 판굿은 추석 한마당의 신명을 극대화할 것이다. 연희집단 The 광대는 풍물, 탈춤, 남사당놀이 등 민속 예술을 전공한 연희자들이 모인 공연예술단체로, 전통연희에 동시대적 이야기를 더한 창작 공연을 선보이며 국내외에 우리 연희의 매력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있다. 본 공연에 앞서 오후 1시부터 2시 50분까지 예원당 로비와 야외 공간에서 부대행사로 △웃놀이 △투호놀이 △버나놀이 △제기차기 등 민속놀이 체험과 소망을 담은 △캘리그래피 체험 △운세를 보는 타로카드 △인생네트 사진 촬영 등 풍성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추석의 즐거



움을 더한다. 또한 현장에서 국립민속국악원 SNS 계정에 게시된 추석 공연 홍보물에 댓글을 남긴 선착순 100명에게 기념품을 증정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이어지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이번 공연은 무료로,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namwon.gugak.go.kr)을 통해 사전 예약이 가능하나 예약은 공연일 2주 전부터 접수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에서 티켓을 수령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고창 전통예술체험마을, 추석 명절맞이 체험 프로그램 '풍성'

고창문화관광재단이 전통예술체험마을에서 10월초까지 추석 명절맞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25일에는 고창에 거주하는 초·중·고교 15명을 대상으로 전통 보자기 매듭 공예를 배우고 작품을 직접 만드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전통문화와 일상 이야기를 나누며 지역 주민 간 따뜻한 소통을 돕는 문화살롱 '함께하는 이야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이어 10월 3~5일(3일간) 추석 연휴를 맞아 '추석 전통놀이 프로그램'이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운영된다. 또 율놀이, 제기차기, 양궁활쏘기, 버나오래돌리기 등 전통놀이 현대화 체험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고창을 찾은 방문객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며 세대 간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김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문화가 있는 날' 확대 운영

김제시(시장 정성주)벽골제아리랑사업소는 24일과 오는 10월 22일에 운영하는 매월 넷째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의 운영시간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는 국가유산 김제벽골제 일원에서 열리는 제2회 김제지평선축제 전후해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 및 벽천미술관 방문객의 증가로 당초 오후 2시부터 4시까지(2시간) 운영하던 일정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5시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문화가 있는 날에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은 민화 부채 · 강강술래 · 꿩이 · 비석치기 만들기 놀이와 벽천미술관의 패브릭 민화 파우치 · 지평선축제 캐릭터 싸리공예 에코백 그리기, 민화 갑반칠 · 거울 등 10여종의 다양한 문화체험을 즐길 수 있다. /김제=박노태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 · 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인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공각

내아